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우리 전자·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드디어 지난 86년 7월 GATT 재가입신청 이후 지난 11월 15일 미국과의 가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3년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사실상 정식회원국(내년 3월 예상)이 되었다. 이는 세계경제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며 우리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 특히,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그간 각종 언론매체에서 다룬 분석내용들을 중심으로 편집 재구성해 본다. (편집자)

■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번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21세기 세계 무역판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한 중국의 가세로 미국, 유럽, 일본 및 개도국 등 4대축으로 진행되어온 다극무역체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개도국 가운데 가장 정치력이 강한 나라인데다 대만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개도국의 가입에 촉매구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힘이 기존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이 당장 WTO체제내에 편입되면 시장개방 효과가 세계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세계무역의 3%를 차지하는 무역규모가 향후 5년안에 두배 이상 늘어날 게 확실시 된다.

WTO가입때 약속한 대로 평균 관세율을 현재의 22.1%에서 17%로 낮추고 각종 수출보조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웃도는 시장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추산으로는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른 효과가 당장 3500억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일정

- 86년 7월 = 중국 GATT 재가입 신청
- 87년 = 중·미 가입협상 개시
- 89년 = 천안문사건으로 협상 중단
- 95년 = WTO가입협상 재개
- 97년 = 아시아 금융위기로 가입협상 교착
- 98년 = 클린턴이 중국 방문, 미·중정상 WTO가입협상 실패
- 99년 4월 = 주룽지 중국 총리 미국 방문, 11월전 협상 매듭짓의
- 99년 7월 = 중·일 WTO 쌍무협상 완료
- 99년 9월 =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
- 99년 11월 = 클린턴 대통령 장주석과 협상 재개 합의
- 99년 11월 15일 = 협상 타결 발표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합의문

미국이 중국에서 얻어낸 것

- 평균관세: 22.1%에서 17%로 인하
- 수출보조금: 기존 보조금 제도 폐지
- 통신: 관련서비스 회사의 외국인 지분 49%까지 허용
- 금융: 외국계 은행 외환업무와 합작은행 설립 허용
- 항공: 보잉사 앞으로 20년간 1200달러 수출예상
- 농산물: 수입관세 31.5%에서 14.5%로 인하
- 자동차: 2006년까지 수입관세 80~100%에서 25%로 인하
- 영화: 외국영화 연간 40편 수입 3년후 50편으로 확대
- 여행·관광: 호텔업에 외국인 진출 무제한 허용
- 변호사·회계사·의사: 관련회사의 시장접근 확대허용

중국이 미국에서 얻어낸 것

- 개도국 지위로 WTO 가입 허용
- 정상교역관계(NTR) 자동 허용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허용
- 중국산 방직제품 수입쿼터제 2005년 폐지

■ 국내 경제 및 전자·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일단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입증가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국내업체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이라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10~17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을 바라보는 우리 전자·정보산업계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한가지는 그동안 자국의 산업보호에 정책의 중점을 뒀던 중국의 거대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정보통신, PC, 가전, 중전기기 등 우리의 주력인 전자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활기를 띠는 등 전자산업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또 한가지는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산 전자제품이 세계시장을 휩쓸어 우리 전자제품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해 대처해 나간다면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업종으로는 정보통신분야가 우선 손꼽히고 있다. 중국은 이동전화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국가인데다 인터넷 인구도 앞으로 5년안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유럽 디지털이동전화인 GSM 방식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CDMA 방식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 업체들의 중국 현지 합작공장 건설 및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품목은 PC다. 보급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잠재수요가 엄청나다.

따라서 국내 PC업체들은 중국내수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유망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전도 그동안 중국수출을 어렵게 했던 많은 무역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가입 따른 업종별 영향

업종	경제교류여건
반도체	맑음
디지털TV, DVD	맑음
초박막액정표시장치	맑음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흐림
컴퓨터	대체로 맑음
전자·통신부품	맑음
이동전화기	맑음
식품	맑음
화학섬유제품	맑음
천연섬유	흐리고 비
농산물	흐리고 비
기초유화제품	맑음
박판, 특수강	맑음
일반강	흐림
경승용차, 승합차부품	맑음
자동차	대체로 맑음
원구류	흐리고 비
저가소비재	흐리고 비

중국의 WTO가입 따른 득실분석

국내시장	· 대중국 무역수지 10억~17억 달러 개선(KIEP)· 무역분쟁 발생시 WTO 분쟁해결절차 밟게 됨→중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운영에 주의 필요
국내사업 대중국 진출	· 중국 단계적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진출 용이 · 미·중 양자협상 내용, 한국에도 동일적용 · 중국이 WTO규범 위반시 다자차원에서 해결가능
미국등 3국시장	·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 · 섬유분야는 다소 영향 받을 듯→미국이 중국에 대해 섬유쿼터제의 폐지기간을 2005년 이후 일정기간까지 연장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우리 전자·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 중국지역의 가전제품 수출은 주로 대형 TV와 에어컨 등 고가품 위주였으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중저가 제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TO 가입으로 우리 전자업계는 적극적인 변화와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대중국 진출 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된다.

그동안 중국업체와 합작으로 중국진출을 추진해 왔던 국내업체들은 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일부를 현지에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관세혜택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현지판매시 상당한 고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산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던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마케팅 측면으로 전환, 현지 판매업체들과 제휴를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뒤에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더욱 주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응전략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WTO체제 가입이 한·중 두나라 모두에게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중국은 자국의 시장개방에 맞서 WTO가 수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반덤핑조례, 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례 등을 수시로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기능, 디자인 등의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고도화를 이루고 비교우위를 상실한 업종은 적절히 중국으로 이전해 현지 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개방을 가속화함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고 우리와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단체)·관(정부)이 수시로 한자리에 모여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업체가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